



3면

선우재, 제3차 '정책과 대화' 포럼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음 10월 18일) 제36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한다

전북자치도·새만금청  
군산해수청 등 협약 체결  
전담팀 구성·운영키로  
전문가 참여 컨퍼런스도



지난 15일 군산 리마다호텔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8개 기관 간 업무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협약 증서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동으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군산 리마다호텔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이하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8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크루즈 관련 여행사 및 선사, 전문가를 초청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업무협약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크루즈 인센티브 방안, 세관, 출입국 심사, 검역, 신항만 관련 지원 등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 기관들로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프린세스, 코스타, 팬스타, 롯데JT 등 크루즈 관련 선사 및 여행사와 배재대학교 운영준 교수 등 크루즈 관련 학계·전문가 등 50여 명이 대거 참석한 컨퍼런스 개최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추진에 이날 참석한 여러기관 대표들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컨퍼런스 주요 내용은 배재대학교 운영준 교수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향과 과제, △새만금 크루즈 유치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이뤄졌으며, 발표 주제 등에 대한 종합토론과 선사·여행사 소개 및 발표 시간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업무협약과 컨퍼런스를 계기로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에 큰 추진 동력이 얻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새만금은 항후 서해안을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도약해, 새만금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협약 기관과 컨퍼런스 참석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새만금을 대한민국 8대 기항지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자”고 덧붙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과 세미나를 계기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탄탄해져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나가기 기대한다.”면서, “새만금이 국민과 전북자치도민의 염원을 담아 동북아의 크루즈 관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속초, 서산, 제주 등 크루즈가 입항한 타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있으며, 크루즈를 운영 중인 기업과 면담을 통해 시장상황을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도는 새만금개발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연도 유치를 목표로 지난 6월 18일 전담팀을 구성, 키오프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연구용역을 통해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참석, 제주항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아시아 크루즈산업 관련 동향과 크루즈 관련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새만금 신항만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 기관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 이날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으며, 전담팀도 구성하게 됐다.

도는 앞으로 선사 및 여행사, 관광 관련 전문가 등 구성기관을 확대할 예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지속 가능하고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포함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청이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 간담회 및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춘 크루즈 입항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은 앞으로 조성될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및 지역간 연결도로, 2030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완공으로 접근성이 확보되고, 2027년 국립새만금수목원과 민간 리조트 개장 등 다채로운 관광시설이 확충될 예정이어서 동북아시아 크루즈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이만호 기자

## 도내 재난형 가축 전염병 정밀진단 '원스톱' 처리

### 전북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정밀진단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체계 개편은 기존에 구제역 정밀진단을 수행하던 북부지소(익산 소재)의 업무를 본소(장수 소재)로 이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로써 기존에 북부지소와 본소에서 각각 관리되던 정밀진단 기관이 본소로 통합되어 구제역은 물론 AI와 ASF 등 모든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진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가축 질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시험소는 그간 통합 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실을 고도화하는 등 진단 역량을 강화해왔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진단 체계 일원화로 방역 체계가 강화되며, 전염병 조기 차단과 가축 산업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꿈의 대기업 분양 실현

삼성전자, 산단 내 스마트허브단지 건립 예정지  
분양대금 총 173억원 납부... 군 재정수입 증대

삼성 전자가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 내 스마트허브단지(가칭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예정지의 분양대금 납부를 완료했다.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스마트물류센터 입주예정지. (사진=고창군청 제공)

류센터 구축예정  
삼성 전자는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를 매입해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건립한다.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 승인 14년 만에 꿈의 대기업 분양이 실현되면서 군민 숙원이 해결됐다. 지난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3일 고창 스마트물류센터의 분양대금 총 173억원 납부를 완료하고, 다음날(14일) 소유권이 전철차까지 마무리 했다. 아울러 취득세 3억원 정도를 신속히 납부하여 고창군 재정수입 증대에 큰 도움을 줬다.

### ▲신활력산업단지 첫 대기업 분양 성사 '환호'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는 2010년 고창일반산업단지조 승인 이후 공사중단과 환경오염 논란 등의 여러 우려곡절을 겪으며 군민들의 애를 태웠다. 이에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과 동시에 신활력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ESG기업 유치에 매진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9월25일 삼성전자와의 투자협약과 올해 4월3일 분양계약, 11월 소유권 이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고창군민들은 '삼성'이 들어온다는 것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각 모임·단체별로 거리 곳곳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호남권 최대규모 물

앞서 지난 10월 24일에는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건설설계를 맡은 (주)무영종합건축사가 고창군을 찾아 심덕섭 군수와 업무협의를 갖기도 했다.

물류센터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내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중 건설·기계장비 등 국내 기업 및 인력의 우선 활용·채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스마트물류센터가 본격 운영시 500여 명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은 물론, 학계 및 관련 산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계획하는 고창 스마트물류센터는 자동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장비의 연동이나 유지보수 등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연스럽게 로봇, 컨베이어, 소터 등 자동화 장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와 이전까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 투자하기로 결정해준 삼성전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격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로 남원을 응원해주세요

남원시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아보세요!

### 기부 혜택

**기부액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기부자의 현주소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액 30% 이내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물, 남원사랑상품권

### 기부 방법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 e음 시스템  
(http://ilovegohyang.go.kr)

**대면 기부**

농협창구 방문 신청(전국 5,900개 지점 가능)

피어났다 남원